

02 우리는 모두 가면(Persona)을 쓰고 살아간다

-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인격 가운데서 외부와 접촉하는 외부 인격을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. 개인과 사회적 집합체 사이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정의했다.
- 가면과 맨 얼굴의 경계가 애매해진다는 모티브에 우리가 끌리는 이유는, 자기 정체성이나 인격이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고 감추고 싶었던 무의식이 표출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.
- 사람의 인격은 다면적이어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걸치고 있던 페르소나를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페르소나로 바꿔 쓰면서 어떻게든 인격의 균형을 유지해 살아간다.
- 그런데 오늘날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사일로(개인이 속한 다양한 입장과 소속, 즉 여러개의 페르소나)의 강렬한 횡적 연계가 시작된 듯하다. 이는 회사원이 가정과 직장, 그리고 개인이라는 세 가지의 인격요소(페르소나)를 구분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것과도 같은 현상이다.